

2017년 마지막 날 클래식 여행 떠나요



광주문예회관 31일 음악회
‘악보 밖으로 나온 클래식’
비발디·피아졸라 등 기타 연주
해설 동화 ‘테디베어...’ 상영



장승호(왼쪽)와 기타 4U

클래식 공연을 즐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2017년의 마지막날, 광주문예회관이 송년음악회 ‘악보 밖으로 나온 클래식’을 마련한다. 31일 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부는 ‘기타로 떠나는 세계 음악여행’으로 기타리스트 장승호가 이끄는 기타 트리오 ‘기타포유’가 바이올리니스트 송수현과 함께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타 연주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기타포유는 국제 기타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은 음악감독인 장승호를 중심으로 국제콩쿠르를 석권한 김보금, 김태호로 이루어졌다.
비발디의 ‘3개의 기타를 위한 협주곡’,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몬테의 ‘차르다시’,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등의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김재열이 실시간으로 구글맵을 이용해 생동감 넘

치는 영상자료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결합한 해설을 들려준다.
2부 ‘테디베어 이야기’에서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아동 문학가인 마하일 엔테의 원작동화 ‘테디베어 이야기’가 컬러테라피 일러스트 화가인 김해정의 그림, MBC성우 안정현의 내레이션과 함께 상영된다. 장면마다 떠오르는 스토리들을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다. 테디베어가 세상 밖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만나는 부지런한 꿀벌, 아름다운 백조 등 다양한 동물의 대화를 성우

안정현의 내레이션으로 풀어간다.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며 흥얼거리며 겪는 ‘나의 존재에 대한 고찰’을 떠오르게 한다.
첼리스트 송지현, 신원아, 원지희, 조명환, 진민수, 이희원 등이 출연하며 위너의 ‘테디베어’, ‘빠꾸기’, ‘원숭이의 장난’, 힐러의 ‘하루살이’, ‘나비알츠’, ‘방울뱀 땡고’, ‘귀벌레’, ‘거북이 부기’ 등의 곡이 연주된다.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613-835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지역 작가들과 ‘작은 책마당’ 연 풍암호수도서관

풍암호수작은도서관은 지난 23일 ‘작은 책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못 말리는 카멜레온’ 그림책을 출간한 윤미경작가와 이 책을 발행한 국민서관출판사를 연결해 북 콘서트와 작은 북 쇼를 진행했다.
또한 국민서관의 우수도서들을 전시하고, 그림책 낭독과 토크를 병행해 이용자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여성자장작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작은 책마당’은 도서관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작가, 독자, 출판사가 한자리에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로 작수 달 넷째 주 토요일마다 추진한다.
풍암호수작은도서관은 지난 10월 개관 이후 평일은 40여 명, 주말에는 80여 명이 이용하면서 마을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지난 23일 풍암호수작은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책마당’ 모습.

독특히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에서 독서진흥에 힘써온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대표 심명자)는 마을사람들

이 도서관에 머물며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흑백영화에 담긴 쿨한 감성

오늘 ACC 예술극장 영화더빙쇼 ‘자유결혼’



최은희 출연 당대 품미 영화
광주 배우들 목소리 연기



영화 ‘자유결혼’의 한 장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ACC 빅도어시네마의 2017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광주지역극단 드라마스튜디오와 함께 기획·제작한 영화더빙쇼 ‘자유결혼’을 선보인다. 25일 ACC 예술극장 극장2.
영화더빙쇼 ‘자유결혼’은 국립극장의 제1회 창작희곡 공모 당선작을 원작으로 제작한 1958년 영화 ‘자유결혼’을 각색한 작품이다.
영화는 6·25 전쟁 이후 변화하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고 박사네 세 자매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개봉 당시에 명쾌한 코믹희극드라마라는 평과 함께 최은희, 이민자, 조미령, 김승호 등의 유명 출연진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이번에 새롭게 ACC 무대에 오르는 영화더빙쇼 ‘자유결혼’은 양정인 감독이 연출을 맡아 과거의 결혼에 대한 가치변화를 현대적인 감각의 언어로 바꾸

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배역들을 지역 배우들이 직접 목소리 연기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함께하는 임주신 음악감독은 직접 작곡한 노래와 라이브 밴드 연주를 통해 뮤지컬적 요소를 가미시켰고, 발걸음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등, 영화의 모든 효과음을 무대 위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폴리아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료는 전석 2만원. 문의 1899-5566. 한편, ACC는 크리스마스인 25일은 정상 운영하고 다음날인 26일은 휴관한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남도국악원, 국악문화학교 교재 발간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성열)이 남도무형문화예술사리츠 7 ‘김행연의 무가’, 브랜드공연 ‘운림산방 구름으로 그린 숲’ 등 국악문화학교 수강생들을 위한 교재 및 DVD를 발간했다.
1986년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에서 최덕원(1935~2011, 전순천대총장)이 녹음한 ‘김행연의 무가’는 신에게 굿을 고하는 기본적인 절차들이 빠짐없이 구연되고 있어서 매우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브랜드공연 ‘운림산방 구름으로 그린 숲’은 2016년 제작돼 여러 차례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이번 DVD 영상은 2017년 2월 10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진행된 공연실황을 한국정책방송원(KTV)에서 촬영한 것이다.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일반인 국악동호인들을 위하여 매년 국악문화학교를 통해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다. 2017

년에 발간된 국악문화학교 교재는 대금, 아쟁, 사물놀이 세 과목이며 교재에는 국립남도국악원 연주 단원의 연주모습을 담은 DVD가 포함돼 있다. 또한 교재와 DVD는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www.jindo.gugak.go.kr)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서점서 굶은 신용카드 금액 1년째 감소세

책을 읽지 않는 풍조로 인해 서점에서 사용한 개인의 신용카드 금액이 1년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점에서 굶은 신용카드 금액은 지난 9월 1307억5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다. 서점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액은 지난해 12월 10.6% 감소한 이래 올해 9월까지 하향곡선을 이어갔다.
책에 돈을 쓰지 않는 경향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가 책을 구매하는데 쓰는 돈은 월평균 1만5335원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작년 신간 단행본

정가(교보문고 납품도서 기준)가 1만 8108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가구가 한 달에 책 1권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책 구입 감소는 책을 읽지 않는 풍조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연합뉴스